

최근 북한 의약품 생산 현황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박창진 (jintonic@kdb.co.kr), 조서연 (sycho525@naver.co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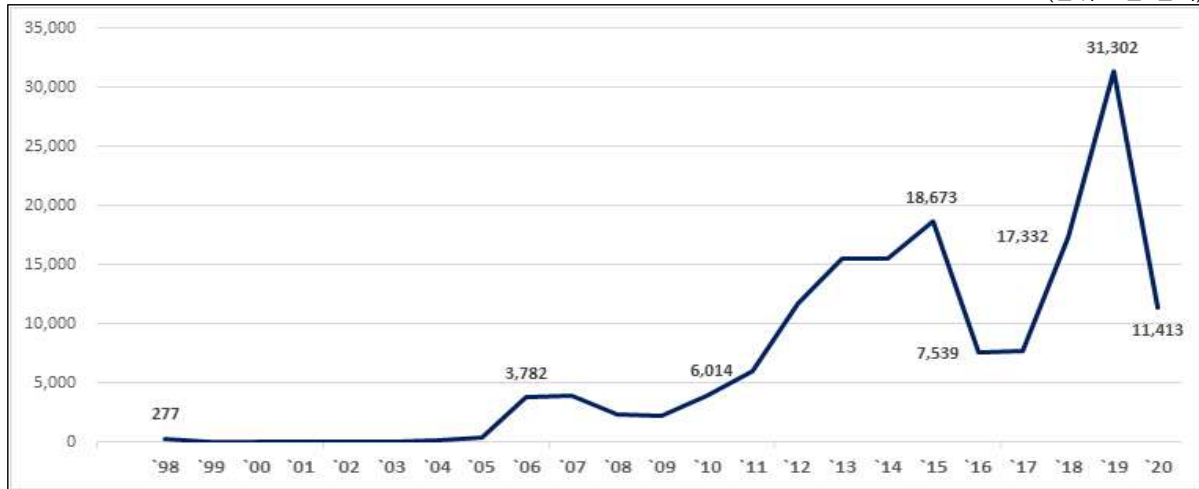
- ◆ 북한 의약품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,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공급 차질 및 가격 폭등 발생
- ◆ 의약품 부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별 자체 의약품 제조, 고려약(한방약) 생산 독려, GMP* 기준에 따른 기존 제약공장 현대화 등 자구방안 모색 중
 - * Good Manufacturing Practice : 의약품·의료기구·식품·화장품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, 세계보건기구(WHO) 권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용
- ◆ 향후 국경봉쇄 해제시 수입 재개에 따라 의약품 부족 문제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, 생산능력 증대 등 근본적 수급 개선에는 장기간 소요 예상

□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로 의약품 수입이 급감하여 심각한 부족현상 발생

- '90년대 초반까지 보건당국이 사회주의권 국가와 협력하여 의약품 생산·공급을 전담해 왔으나, '90년대 중반 이후 원료 부족, 설비 노후화에 따른 가동률 급감으로 의약품 생산능력 저하
 - '고난의 행군'('95~'98년) 이후 의약품 공급은 중국 등 해외 수입에 의존*
 - * 중국 의약품 수입액은 고난의 행군 직후인 '98년 27.7만 달러에서 '19년 3,130.2만 달러로 연평균 39.9% 증가
- '20년 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로 중국으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이 감소하여* 항생제 등 필수 의약품 수급에 차질 발생**
 - * '20년 중국 의약품 수입액은 1,141.3만 달러로 전년 대비 64% 감소
 - ** 서울평양뉴스(2020.12.22자), "북, 국경봉쇄 1년... 의약품 고갈, 장마당 인파 절반이상 감소"
 - 장마당을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, 의약품 품귀 및 가격 폭등도 발생
 - * 데일리NK(2020.04.03자), "'항생제, 코로나19에 효과 없다'는데... 北 시장서는 가격 폭등"

중국 의약품 수입액

(단위 : 천 달러)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

□ 의약품 조달을 위해 의료기관 자체생산, 고려약 생산 장려 등 자구책 모색 中

- 정성제약공장 등 10여개 중앙급 제약공장에서 3~4종의 항생제와 20여종의 합성의약품, 소규모 지방급 제약공장에서 재래식 제조법으로 1,200여종의 고려약(한방약) 생산 中
- 의약품 부족 해결을 위해 보건당국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도 자체적 의약품·의료기구 생산을 지시*
 - * 데일리NK(2020.7.3자), "北 의약품도 자력갱생?... '병원서 자체로 제조·사용하라'"
- 단기간에 부족한 필수의약품의 국산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려약 생산을 독려하여 양적 개선 추진
 - 고려약은 1차 의료기관 투약 비율이 70% 이상에 달하는 등 대중화되어 내과 질환 및 일부 수술관련 질환 등에도 활용*
 - * 한의신문(2020.4.21자), "고려의학, 북한 전체 일차의료서비스의 70% 담당"
 - 고려약 생산 확대를 위하여 주요 고려약 공장 앞 생산량 증산 지시*
 - * NK경제(2020.2.26자), "북한, 코로나19 대응 항바이러스 약품 개발 총력"

주요 고려약 제품

안궁우황환(건강보양)



자료 : 중국 바이두(百度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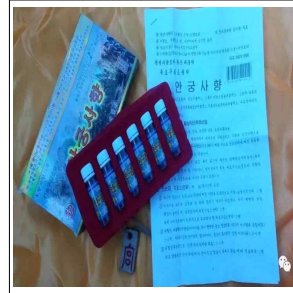
금인등근알(간세포 특효)



뇌심사향(뇌질환 개선)



안궁사향(간세포 특효)



○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주요 제약공장 GMP 인증 설비 건설 등 의약품 생산 공정 질적 개선도 추진

- 제약공장 GMP 인증 건수는 '08년 1건(평스제약공장), '19년 2건(토성제약공장, 룡흥제약공장)에서 '20년 상반기 정성제약공장 등 10건 이상으로 급증*

* 뉴스1(2020.7.14.자), "우리도 질 좋은 물건 만든다... 북한, '품질 인증' 자랑"

GMP 인증 공장(정성제약공장)



자료 : 조선중앙통신(2020.2.24.자)

GMP와 QCC 인증 증서



자료 :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신년포럼 발표자료(2021.1월)

□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국경봉쇄 해제에 따라 의약품 품귀 현상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, 생산능력 증대 등 근본적 수급 개선에는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

○ 중앙급 제약공장은 '50~'90년대에 설립되어 설비 노후화가 심각, 인적·물적 자원 부족으로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물량 및 품질 모두 미흡*

* 메스파나(2018.6.27.자), "복지부, 북한 제약공장 열악... 장단기 지원·협력 강구"

○ 다만, 제약·의료 부문은 대북 경제제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주변국을 통한 생산설비 확충 등 협력사업 기대 가능성 강화